

다산포럼



이기영 호서대 명예 교수 초록교육연대 공동 대표

창의적 인재 만드는 다산의 책임기 자녀 교육

는 당시 허례허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통치 논리와 당파싸움에나 이용되던 경학(주자학)을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실용적 경제학으로 다시 썼다.

더 나아가 당대 대부분의 한국사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의 사서들을 탐독, 비교해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바로잡은 '야방강역고'를 편찬했다. 다산은 이 책에서 발해가 거란에 복속되어 우리나라가 작은 반도 민족으로 전락했음을 한탄했다. 거문고를 즐겨 탔던 그는 중국에 의존해 잘못 전담돼 내려온 비교학적 음악 이론인 율려의 체계를 바로 세우려 '악서고존' 12책을 완성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어린 자식들을 역병(천연두)으로 잃은 다산은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 의서들을 읽고 이에 대처하는 의과학 서적인 '마교회통'을 써 수많은 어린이들을 살렸다. 그는 청나라를 통해 접한 서양의 실용적 과학이나 천주교 등 서학을 우리 고유의 전통적 가치관과 잘 조화시켜 백성이 잘 살고 나라가 융성하도록 200년 전 조선의 지성사를 대대적으로 정리해 실학의 대기가 되었다. 다산은 이미 당시 동서양을 융합한 통섭의 선구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통섭은 지금 기후 위기로 절멸에 이른 인류세(Anthropocene)를 구하기 위해 지극히 필요한 일이어서 지식인들이 다산의 학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약용은 가세의 몰락으로 실의에 빠져 슬로 지새던 불개 아들 학유에게 지속적인 편지를 통해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은 물론 어떤 책을 어떤 순서대로 읽고 문장을 어떤 방식으로 써 나가야 할지까지 세세하게 조언해 주었다. 학유는 편지를 통한 아버지의 끈질긴 노력으로 슬을 절제하고 아버지가 평생 매진해 왔던 주역 해설서 '주역심전'(周易心筵)을 완성해 다산의 학문 활동을 도왔다. 아울러 그는 농가에서 매달 할 일과 풍속 등을 한글로 읊은 체계적인 농사 매뉴얼인 '농가월령가'를 펴내 만들어 우리 농경 기술과

문화사에 큰 이정표를 남겼다.

요즘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 내 생존 경쟁 강도가 높아지면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자책감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실상은 교육은 엄마에게 일임하고 아버지는 그저 돈이나 많이 벌여 고액 외모로 아이들을 일류 대학에 보내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유소년 시절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었던 부모님께서 시간만 나면 기도서나 경향잡지 같은 월간지를 읽고 계셔서 나도 글을 읽고 싶어 안달이 났다. 처음 알게 된 글자는 벽에 붙어 있던 달력용 어머님께 읽어 달라고 해서 외운 '동성화학주식회사'란 글씨인데 비료 회사명이었다. 더 나아가 난 누이들을 벗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초배지로 쓴 신문을 읽어 달라고 졸라 다섯 살도 안돼 초등 교과서를 죄다 읽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자매들 의사를 존중해 주시면서도 늘 자연을 관찰하고 놀이로 삼아 가까이하도록 배려해 호기심을 키워 주셨다. 그러면서도 결코 공부를 강요하지는 않았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면서 도 양보하는 예절과 자유를 가르쳐 주셨다.

덕분에 난 초등생 때 혼자서 기타를 배웠고 중학생 때는 작곡도 시작해 음악학원 한 번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중학 음악 교과서와 한국 가곡집에 실린 '한강은 흐른다'(오세영 시)와 2016년 6월 23일 독일의 베를린 필 대공연장에서 열린 '안중근 평화음악회'에서 초연된 '광야(이육사 시)' 등의 노래를 작곡할 수 있었다.

이젠 우리의 아버지들이 일찍 귀가해 TV를 끄고 아이들과 함께 매일 책을 읽는 저녁 시간을 만들어 보자. 이제 위기의 인류 문명을 구하기 위해 다산처럼 동서양을 통섭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가진 많은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책 읽는 아름다운 아버지 운동'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기후변화로 일기예보를 시작한 지 114년 만의 최악 폭우가 쏟아져 많은 사람이 죽었다. 강남이 물에 잠겨 고급 외제차 수천 대가 마가지는 등 길고 무더운 장마가 두 번이나 지나갔다. 그러나 이젠 귀뚜라미가 울면서 선선해져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인류가 탐욕으로 초래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3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과학자들이 경고가 빚발치고 있다. 그런데도 서로 자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고 러시아의 핵전쟁 불사 경고에 이어 핵발전소에 무기고를 설치하고 주변에 서로 포탄을 퍼붓는 등 핵전쟁 위기설까지 난무하고 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소한 생활로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하며 전 인류가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권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국가와 기업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지구촌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지식인들의 창의적 역할이 중요하다.

정조가 승하한 뒤 다산은 노론에 의해 황사영 백서사건과 천주교 신자라는 빌미로 역적으로 몰려 18년간 땅굴 갱전에 유배 갔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혜장 스님이나 초의선사와 유불선을 넘나드는 깊은 지적 교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키우며 수많은 책을 읽고는 500여 권이나 되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펴냈다. 그

김하림의 차이나 4.0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타이완과 타이완 사람들(3)

참석한 수난자 호조회 회원은 두 분이였다. 주숙정(周淑貞) 여사는 1930년생으로 1945년부터 노동운동을 하다가 1949년 공산주의자와 연계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7년을 복역했다. 도구미(涂秀美) 여사는 1951년 체포되어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분의 부인이었다. 이 두 여성 분의 수난의 역사는 지난 시기 타이완 역사의 한 장을 구성하고 있다.

타이완 측의 사업을 주관한 쑹차오는 객가(客家)족 출신으로 1956년 타이완에서 출생했다. 대학 졸업 후 시와 산문 창작 활동을 하다가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천영전 선생이 창간한 '인간'(人間) 잡지에 근무하면서 탐방 기사 및 문화 관련 기사를 담당했다. 1990년대부터 민중연극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희곡 창작과 연극 연출에 집중했고 1997년에 차사극단(差使劇團)을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차사극단은 전문 배우 없이 일반 자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연극과 결합시키는 작업 및 아시아 민중연극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과 광주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2005년 광주 아시아 마당연극제에 차사극단을 이끌고 참여하기도 했다. 쑹차오는 특히 김남주 시인을 존경하고 그의 시에 심취되어 있다. 광주에 오면 망월동 김남주 시인의 묘소를 방문하고 술 한잔 올리며 무덤가에서 깊은 상념에 빠지기도 한다. 김남주 시인의 시 '학살' 시리즈를 테마로 하는 연극 '한밤중의 천사'를 2006년 공연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타이완 독립파의 견해도 중시하지 않고, 통일파의 주장에도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다. 미국을 위시한 외세의존적 독립이 가져올 문제나 공산당 주도의 통일이 가져올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현실을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하고 발 디딘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현실적 이상주의, 혹은 이상적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을 까. '독립과 통일'이라는 당위적 명제와 명분을 내세우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그는 현실을 살아가는 타이완 민중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삶을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탄탄한 민주적 주체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독립이나 통일 이전에 혹은 그 전제로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활동해 왔다.

미국 권력 서열 3위라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인해 해협 양안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미중 수교 당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격렬한 항의는 물론 무력을 동원하여 시위하기도 했다. 미중 간에 격화된 갈등의 불꽃이 어떻게 번져갈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우리로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수만 없는 처지이다. 쑹차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제는 퇴직하여 타이베이에서의 일을 접고 고향을 따라 도망하는 지평을 집중한다는 소식을 전해 왔는데, 높아지는 파고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지 고민에 빠졌을 그의 얼굴이 떠오른다.

시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원하다

노력했는지를 가능할 수 있었다. 시의 즐거움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잠으로 사소한 데 있다. 시가 모든 것을 보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보인다 싶으면 사라지고, 잡힌다 싶으면 도망가 버린다. 그렇게 다시 만나는 시의 모습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 새로움에 몰두하는 일이어말로 즐거운 노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요즘은 시 쓰기에 도전하는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다. '말만 할 줄 알면 시를 쓸 수 있다'라는 선언적 구호 아래 나는 시 쓰기 교실의 높은 담을 허물고자 했다. 객관적 눈중에 근거한 글쓰기와는 달리 시 쓰기는 시의 언어가 만드는 세상이다. 시어는 지식에서 비롯되지 않고 영감에서 비롯되기에 학력 불문, 나이 불문하고 말만 할 줄 알면 시를 쓰는 일이 가능해진다.

시를 쓰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내 마음의 지평목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만나는 일이다. '거짓 자아'가 '진짜 자아'를 만나야 한다. '진짜 자아'가 시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진짜 자아'를 만나기 위해 '가짜 자아'의 가면을 벗을 용기만 있다면 그때 시는 겹겹이 감추었던 자신의 알몸을 드러낸다. 시가 태어난 생명은 눈물이다. 눈물은 일개몸이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고,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이 들려지고,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알아진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안다'

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부정문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 '알지 못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알어도 안 것이 아니다'가 된다. 이런 인지 능력의 한계를 단번에 극복해 내는 방법은 지식이 아니라 영감에 의해서다. 시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지점과 기도가 영혼의 호흡을 따라 도망하는 지평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시는 한 편의 기도가 되기도 한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시의 형식도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신선도에 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처음 맛보는 날 것으로 만들었냐에 따라 시는 생명력을 획득한다.

굳이 형식을 갖춘 시 쓰기가 아니라도 문득 떠오르는 어떤 글귀가 있다면 틈틈이 메모해 두는 것도 좋다.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영감에 의한 것이기에 지나가면 잊혀지고 메모해 두면 그것만큼 신선한 것도 없다. 매일 맞이하는 일상 속에서 내일을 기대함은 그 알 수 없는 새로움에 있다.

'내가 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가 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일찍이 괴테는 말했다. 시원해진 바람과 놀은 하늘,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사색하기 좋은 가을에는 하고 싶은 말도 영근다. 이 가을 시를 통하여 넉넉해지는 마음의 풍요를 자연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 싶다.

社說

정부, 농민들 “쌀값 안정화” 절규 외면할건가

쌀 생산비가 끝없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가격의 한없이 추락해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남농협 양곡자재단에 따르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출하된 햅쌀(조생종) 가격은 20kg 기준 4만 3000원-4만 5000원(도매가격) 선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출하된 햅쌀보다 23.2%(1만 3000원) 떨어졌다. 재고 쌀과 수요 감소로 인해 떨어진 가격에 햅쌀 가격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쌀값 폭락세는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량도 7월 말 기준 43만 톤에 달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 쌀 재고량(전국 23만 7000톤)보다 80.6% 많다. 전남의 경우 전년도 7월보다 무려 191.4%가 많은 10만 톤이 남아 있다. 재고량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 농협이 전년도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체 햅쌀의 90%에 이르는 중만생종 햅쌀을 사들여기는 어려운 구조다. 농민들은 “조생종

햅쌀 판매가격 하락에 이어 추석 이후 수확하는 중만생종 농협 수매가의 하락, 중만생종 햅쌀 판매가격 하락 등 폭락의 악순환이 시작됐다”며 혼란만 내쉬고 있다.

급기야 농민들이 시위에 나섰고 쌀 주요 생산지인 전국 8개 시도지사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쌀 10만 톤 시장 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 시장 격리제 시행 의무화, 논 타작물 재배 사업 고지 지원 부활 등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 부족과 농자재값 폭등에 시름겨운 농민들에게 쌀값 폭락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과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쌀값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한 단기 처방으로 시장 격리를 우선 추진하고 제도적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 관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괴물 태풍에 만조까지...해일 피해 예방 만전을

조강력 태풍 힌남노가 전남 남해안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각에 만조가 겹쳐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중심 기압 930hPa, 최대 풍속 초속 50m로 '매우 강' 단계를 유지하며 북상 중인 태풍 힌남노가 오늘 오전 3~6시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전 3시 태풍 중심이 완도 남동쪽 80km 부근을 지나 오전 5시 여수 동남동쪽 50km, 오전 6시 광양 동남동쪽 60km 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북상에 따라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50~100mm, 광주·전남 내륙에는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순간 풍속 역시 남해안 초속 40~60m, 광주와 전남 내륙에서는 초속 20~30m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해안은 만조

와 겹쳐 폭풍해일이 높게 일 전망이다. 만조 시간은 여수 오전 5시 5분, 목포는 오전 9시 36분이고, 폭풍해일은 거문도가 오전 4시께 5.4m, 여수는 오전 5시께 4.7m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태풍이 만조와 겹치면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강한 비바람 속에 폭풍해일과 너울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어선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해안가 저지체들은 침수와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막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태풍은 오전 7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기상청은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중심 위치가 좌우로 50km 이상 변동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힌남노의 강풍 반경이 400km가 넘는 만큼 특정 지역을 상륙 지점으로 상정해 방심하지 말고 모든 지역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기자가 그곳을 찾았을 때는 동리(洞里) 모습은 아주 평범이었으며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바위 위에 앉아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모습이였다.”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1959년 9월 22일자에 실린 기사 중 일부이다. 당시 취재기자는 대형 태풍 '사라'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를 돌아본 후 '양천동곡(仰天縮哭)'하는 '도민들'이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를 썼다. 추석(9월 17일)을 전후한 시기에 전국을 강타해 위낙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사라'에 대한 기억은 노년 세대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살아 있다.

개인적으로는 취재 현장에서 겪은 여러 태풍 가운데 1995년 7월 말 발생한 태풍 '페이'가 기억에 남아 있다. 경남 남해군으로 상륙한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최대 순간 풍속 초속 46.6m)해 여수 일원에 큰 피해를 입혔다. 오동도 방파제를 따라 빠져나오던 승합차가 파도에 휩쓸리며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다가 14만4급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여수 시 남면 소리도 앞 암초에 부딪혀 범거

유와 원유를 유출했다. 이로 인해 인근가 두리 양식장과 섬 해변이 온통 시꺼먼 기름들로 뒤덮이는 환경 참사로 이어졌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전 7시께 남해안에 도달하며 전국이 초비상 상황이다. 제주대 태풍연구소에 따르면 30년 평균(1986년-2015년) 7·8월에 발생한 태풍은 평균 3.7, 5.4개, 9·10월 발생한 태풍은 5.1, 3.5개이다.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들 역시 주로 가을 태풍이었다. '사라'(1959년 9월 15-18일)를 비롯해 '루사'(2002년 8월 30-9월 1일), '매미'(2003년 9월 12-13일)가 대표적이다.

날씨는 '변화무쌍'(變化無雙)하다. 적도에서 발생해 북상하는 태풍의 진로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해도 뒤따르는 인명·재산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철저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태풍 '힌남노'가 추석을 앞둔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큰 탈 없이 지나가기를 바란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기고



조선의 시인

아무리 좋은 것도 직업이 되면 그것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생긴다. 정신적 가치에서 물질적 가치로 바뀌는 것이다. 정신적 가치는 영감의 영역이지만 물질적 가치는 현실의 영역이다. 두 가치가 별개인 것 같아 보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마주할 수 없어도 하나의 몸통이다. 그렇다면 가치의 변화가 만들어 낸 파생적 문제는 무엇일까. 주체가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이 낯설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시를 쓰는 일이 내게는 어느 시점부터 단순한 정신적 가치에서 현실적인 물질적 가치를 동반하고 있다. 이는 나의 시가 갖는 사회적 범위로의 확장이기도 하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투자였지만 가을이 되어야 알게 되었다. 열매를 보고 무엇을 심었는지, 맛을 보고 특상품인지, 결실의 양을 보고 얼마나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